동국대 새 랜드마크 '로터스관' 건립불사 첫 삽

9월 30일 혜화문 앞서 착공식
돈관 스님 "동국 미래 밝힐 것"
본관 · 별관 2개동 8007평 규모
박물관 등 구성… 2028년 완공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는 9월 30일 교내 혜화문 앞 특설무대에서 착공식을 열고 '로터스관' 건립불사의 시작을 알렸다. 사진은 주요 내빈들이 시삽을 하는 모습.

조계종립 동국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로터스관' 건립불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9월 30일 교내 혜화문 앞 특설무대에서 착공식을 열고 로터스관 건립불사의 시작을 알렸다.

로터스관 신축은 지난 2012년에 남산공원 구역이 해제 된 후 동국대가 추진해 온 불사다. 2018년 학교법인 동국대 제315회 이사회에서 신축사업이 승인된 후 답보상태였지만, 지난 3월 제360회 이사회에서 로터스관 신축사업이 변경 승인되면서 건립불사가 급물살을 탔다. 이후 5월에는 실시설계 변경을 완료하고 감리업체와 시공업체들이 선정됐으며 9월에 착공신고가 완료됐다.

로터스관은 본관과 별관 2개동으로 구성된다. 본관은 지하 3층 지상 3층(2422평), 별관은 지하 6층 지상 2층(5585평)으로 연면적 합계 2만6470㎡(8007평) 규모다. 시설로는 △박물관 및 수장고(570평) △선센터(120평) △강의실(56개실, 1320평) △학생복지·편의시설(920평) △주차장 등이 들어서며 2028년 완공될 계획이다.

동국대 혜화문(중문) 일대에 로터스관이 신축되면 동호로와 바로 연결돼 학교의 접근성은 더욱 확대되며, 특히 언덕이었던 학생들의 통학로 역시 평지화될 전망이다. 또한 주변 유명 호텔과 체육관·국립극장과 연계돼 학교와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로터스관이 학생과 교수, 지역이 소통하는 열린 법석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진우 스님은 "새롭게 착공되는 로터스관은 자비·지혜·정진이라는 불교 건학정신을 이어 받아 학문의 창조와 수행의 향기, 나눔의 따뜻함이 어우러지는 도량이 될 것"이라며 "여기서 자라나는 젊은 연꽃의 씨앗들이 장차 지혜롭고 자비로운 인재로 성장해 인류 공동체를 이끄는 큰 그릇이 되리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로터스관 건립불사를 통해 동국의 미래를 밝혀 나갈 것을 다짐했다. 돈관 스님은 "120주년을 앞두고 그동안의 원력과 발원이 거대한 공덕의 산을 이뤄 실행의 첫 걸음을 걷게 됐다"면서 "로터스관에 들어사는 박물관과 선센터는 동국이 간직한 뛰어난 전통문화를 모두의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최첨단 교육과 연구 공간 속에서 학생과 교원들은 세계로 확장하는 동국의 밝은 내일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발원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식사에서 "로터스관은 학문과 수행이 조화를 이루는 상징적 터전이 될 것"이라며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첨단 동국'의 산실로서, 학생들이 마음껏 배우고 연구하며 성장하는 배움과 도전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석 사부대중은 "동국의 발전이 곧 불교의 발전이니 새로 세워질 로터스관은 동국의 하드웨어가 되고 동국인들은 소프트웨어가 돼 새로운 120주년을 준비하는 성공의 인프라가 되어 달라"고 불보살께 기원했다.

한편, 동국대는 11월 12일 오후 5시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동국 120년, 로터스관으로 이어가는 미래를 위한 동행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염불·사경 '전통수행법'이 선명상을 만나면?

10월 24일 화두 참선 제1기 시작
11월엔 염불소리 · 사경 선명상도
일감 스님 "전통수행법 기반 개발"

한국불교 전통수행법인 간화선과 염불, 사경, 절 등을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선명상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조계종 미래본부(사무총장 일감 스님)는 '한국불교 전통수행 기반 선명상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10월부터 제1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래본부는 9월 29일 서울 전법회관 3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불교 전통수행법 기반 선명상 프로그램' 진행 계획을 공개했다.

선원에서 수행정진 해 온 수좌 스님의 지도로 '화두 참선 선명상'의 진면목을 체험할 수 있는 '제1기 화두 참선 선명상 프로그램'은 10월 24~26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성웅 스님(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혜진 스님(수좌회 사무처장), 일감 스님 등이 지도법사로 나선다. '마음을 찾아가는 화두(話頭) 참선 선명상'을 주제로 1일 차 상담 및 화두 간택, 화두 명상을 시작으로 2일차 화두 명상과 상담이 이어진다. 3일 차에는 소감 나누기 후 회향식으로 마무리 된다.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화두 참선 선명상은 지식으로 무언가를 더하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생각을 멈춰 본래의 맑고 고요한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제1기 염불소리 선명상 프로그램'은 11월 14~16일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다. '이근원통(耳根圓通), 염불소리 선명상을 통한 내면의 평화'를 주제로 화암 스님, 일감 스님, 혜오 스님이 지도법사로 나선다.

일감 스님은 "염불소리 선명상의 핵심은 이근원통(耳根圓通)과 반문문성(反聞聞性)에 있다"며 "흔히 새나 자동차 소리 등 외부 소리나 마음속 생각인 내부 소리에 집중하지만, 이근원통은 그 소리 자체를 쫓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마음에 귀기울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불 상담과 염불 명상 등으로 진행되며 템플스테이가 아닌 출퇴근 형태다.

'제1기 사경 선명상 프로그램'은 11월 21~23일 서울 법련사에서 열린다. '한 점 한 획, 금빛법사리로 나툰 사경 선명상'을 주제로 행오 스님이 지도법사로 나선다. 사경 선명상은 부처님의 경전, 진언, 불명호 등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독송해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손으로 쓰는 육경 육식이 총동원돼 신구의 삼업을 맑혀 불성을 체득하는 전통 수행법에 기반한 명상법이다.

일감 스님은 "현대인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 업장 등이 눈 녹듯 소멸해 전통 사경이 갖고 있는 느림의 성찰로 이어져 무념무상 삼매(명상) 속에서 부처님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충만해지는 행복의 문,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전통 사경 선명상을 체험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퇴근 형태로 진행되며 회비는 재료비 5만원 포함 10만원이다.

'온전히 나를 만나는 108배 선명상'은 누구나 매일 108배 절명상을 통해 내면을 성찰할 수 있도록 108배 절명상 문안과 영상을 제작해 배포,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은호 기자

"난치병 환아에 밝은 미래를"

제25회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모금 행사

진우 스님, 108배로 3천배 릴레이
"우리 모두 지켜 줘야 할 희망"


사진=김내영 기자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9월 3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과 앞마당에서 '제25회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모금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불자와 시민들의 자비심을 모아 치료비와 수술비 지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25년째 이어오고 있는 모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3000배. 올해는 특히 오전 8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함께하는 108배 기도를 시작으로 하루 동안 1000여 불자들의 3000배 릴레이 정진으로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사진〉

2001년부터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5년 동안 약 1000명이 넘는 어린이에게 35억 이상의 치료비를 전하며 희망을 선물했다. 이는 불교계사회복지계의 대표 모금 지원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진우 스님은 법어에서 최근 자비나눔 방문에서 만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 생명들을 떠올리며 "작은 몸으로 큰 고통을 견디며 환하게 웃어 보이는 모습이 마음에 깊이 울렸다"면서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이 너무도 커서 차마 다 헤아릴 수 없었지만 그 웃음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지켜 줘야 할 희망"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아 어이들에게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주도록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동참자들은 환아의 치유를 발원하는 108배를 하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 이날 모금 행사에서조성된 기금은 현장 및 온라인 모연 금액을 합산,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의 수술비 및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02-5664-2206

난치병 어린이 후원계좌 : 하나은행 271-910005-95104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임은호 기자

"조계종 청사 화재 복구에 한마음"

종무원조합 원우회 4852만원
홍관 · 응묵 스님 각 1천만원



6월 10일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조속한 복구를 발원하며 사부대중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 종무원조합 원우회(위원장 김추연)는 9월 29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복구기금 4852만 8000원을 전달했다.〈사진〉

김추연 위원장은 "화재 이후 종무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업무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모두가 보금자리를 복구하자는 한마음이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우 스님은 "복구를 빠르게 진행해 좋은 업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월 1일에는 팔공산 석굴암 주지 홍관 스님이 1000만원을 전달했다. 홍관 스님은 하루빨리 총무원이 본래 모습을 되찾길 기원했다. 진우 스님은 "전화위복 계기로 삼고 복구에 노력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같은 날 서울 영화사 주지로 임명된 응묵 스님도 임명장을 받은 직후 진우 스님에게 1000만원을 전달하며 청사의 조속한 복구를 기원했다.

임은호 기자



행사명	일 자	시 간	장 소
불화 전시회	10월13일(월)~10월24일(금)	10시	선불당
역대조사 다례재	10월21일(화)	10시 40분	대웅전특설무대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10월21일(화)~10월23일(목)	9시	보우당앞주차장
찻사발 전시회	10월21일(화)~10월29일(수)	10시	보우당
전통사찰 사진전시회	10월21일(화)~10월27일(월)	10시	연화대원앞
한복체험 및 인생네컷	10월21일(화)~10월27일(월)	10시	진여문앞
왕실의 산책	10월22일(수)~10월23일(목)	13시	진여문앞
	10월25일(토)	13시 30분	
	10월26일(일)	12시	
작은음악회	10월22일(수), 10월27일(월)	12시30분	선불당앞
태권도및 전통무용공연	10월22일(수)	13시30분	미륵광장
정대불사	10월23일(목)	11시	대웅전특설무대
난타공연	10월23일(목)	13시30분	미륵광장
전통문화체험한마당	10월24일(금)~10월26일(일)	10시	전통문화체험관앞
봉산탈춤	10월24일(금)	11시	대웅전 앞마당
전통차축제	10월25일(토)	10시	종루 주변 보우당 앞 주차장
남사당패놀이	10월25일(토)	11시	대웅전 앞마당
연합 합창제	10월25일(토)	19시	미륵광장
제11회 어린이·청소년 그림그리기 대회	대회: 10월26일(일) 전시: 10월31일(금)~11월6일(목)	10시	경내
사찰음식 나눔행사	10월26일(일)	12시	미륵전 앞마당
마당놀이	10월26일(일)	12시30분	미륵광장
생전예수재 회향	10월28일(화)~10월29일(수)	9시30분	대웅전특설무대및전도량

※추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